

'내란의 밤' 계엄군 1500여명 투입·실탄 1만발 쏠았다

속속 드러나는 '12·3 내란' 정황

'12·3 비상계엄' 당시 병사를 포함해 총 15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이들은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용 총 등 각종 화기를 지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개인별 지급은 안됐지만, 당시 계엄군이 쏜 실탄만 1만발 이상으로 추정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계엄 당시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다.

병력 수송용 대형버스(45인승) 26대와 중형버스(25인승) 15대를 비롯한 군용 오토바이 25대, 방탄 차체를 한 소형전술 차량 2대 등이다.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도 특전사 707특임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계엄군은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총 1500여명 규모다.

특전사 대원이 1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적 수뇌부 제거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 707특임대가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공수 271명, 9공수 222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다. 특전사는 당시 국회와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봉쇄 임무를 받고 투입됐다.

방첩사는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20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방첩사 요원 49명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로, 체포 후 서울 관악구 인근 B1 지하 병커에 구금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전사·수방사 군용차량 107대
블랙호크 헬기 12대 국회로 비행
방첩사 요원 49명 체포조로 투입
북파공작원 요원 등 30여명 동원

수방사에선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소속 병력 211명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이 중 61명이 사병이었다.

정보사령부는 북파공작 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요원을 포함해 총 3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은 당시 방탄모와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등 개인 장비를 갖추고,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 화기를 지참했다.

아울러 삼단봉과 테이저건,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드론재밍건까지 휴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만 1만여발이다.

특전사 707특임대(197명)는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반출했고, 수방사(211명)는 실탄 5048발과 공포탄 2939발을 소지했다.

특전사 1·3·9공수여단과 방첩사는 아직 무장 수준과 실탄 불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군은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차량이나 헬기 등에서 탄통에 통합 보관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계엄 투입 부대들을 대상으로 병력 규모와 무장 수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HID 첫 임무는 선관위 과장·실무자 납치"

민주당 김병주 의원, 제보 공개 "케이블 타이로 묶고 복면 씌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12·3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움직임에 대해 "선관위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를 납치하는 것이 이들의 첫 임무였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구체적 제보를 받았는데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B-1 병커로 데려오라는 임무를 줬다고 한다"며 "무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서 데려오라는 지침을 주고 준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치할 실무자) 30명의 명단을 다 불러줬다고 한다"며 "HID 대원은 밤 9시경 모였고 인원은 38명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밤 9시경 정보사령관이 '조금 있으면 중요

한 임무가 떨어질 텐데 이따 얘기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뒤에는 '내일 아침 5시에 출발해 선관위에 5시 40분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직원 (오전에) 출근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납치할 인원) 30명에 맞게 민간 차량도 20대 정도 준비한 것 같다"며 "B-1 병커에는 몇백 개 정도 방이 있는데 40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임무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루트로 확인했고, 실제 그 회의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제보도 받았다. 아주 신뢰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제보이며 일종의 양심고백"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해당 임무에 동원됐던 HID 대원 38명을 상대로 회유가 이뤄지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참여한 '계엄 모의'가 뭇 데리야에서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사람이 불벼도 감정을 해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쑤인다)"며 "도감정이 어려운 장소로 패스트푸드점을 골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용현, 계엄 선포일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발언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국방부 정책차장 등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현은 12월 3일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

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어 "해당 오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차장방정환 준장이 당일 오후에 휴가를 내고 정보사 판교사무실로 이동했다"며 "방 준장은 물론 휴가를 승인한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또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모씨라는 민간인"이라며 이와 관련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계엄선포 당일 오후 7시부터 윤 대통령 주재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안기에서 만찬을 할 때 김용현 전 장관과 박

안수 육군총장이 동석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사단은 "안기를 관리하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즉각 소환해 이 모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면서 "대규모로 군 고위 현역 직위자들이 개입돼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 직위자들이 아직도 현직에 머물러 있다"며 "오늘 언급된 직위자들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다. 본인 스스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탄핵심판 국회 측 소추 대리인 송두환·이광범 등 변호사 17명 선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19일 선임됐다.

송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광범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

송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2017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은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환 변호사가 담당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리인단 인선 기준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오는 20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 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